

독해

실전 시험 108~110

정답 및 해설

정답 : ㉠ 1 ㉡ 3 ㉢ 4 ㉣ 3

次の文章を読んで、後の問いに対する答えとして最もよいものを、1・2・3・4から一つ選びなさい。

脳は妙に自己満足する。買い物中に気に入った服AとBがあったとしよう。残念ながら両方買う予算はないが、どちらも好きなデザインで1つを選ぶのは難しい…。断腸の思いで(注1)Aを選んだ。さて、このときAとBに対する考えはどう変わるだろうか。アンケートを採ると、面白いことに選択前に比べて選択後はBへの評価が下がることがわかった。つまり、自分が選ばなかった服に対して「それほど好きじゃなかった」と考えを変えてしまうのだ。そこで別の実験を行ってみた。今度は服AとCを選ばせる。Cよりも、Aのほうがいくぶん自分のタイプだ。躊躇なくAを選ぶだろう。この場合、選択後Cの評価は下がらない。このことから、選択後の好感度の変化は、品物の好ましさに明確な差がない時にだけ現れることがわかる。

もう1つの実験を紹介しよう。ある団体に入るため、複雑な手順を踏む手続きと、それほど難しい手続きのどちらかを経て入団してもらう。入団後にその団体の印象を聞くと、複雑な手続きをして入団した人のほうが好印象を持っているというデータが出た。さて、この2つの実験結果をどう分析したらよいだろうか。

一般的に人は、自分の「行動」と「感情」に差があるとき、①この不一致を無意識に解決しようとする。つまり、この2つを一致させようと考えた結果、行動か感情のどちらかを変更するというわけだ。この2つのどちらが変えやすいだろうか。言うまでもない。「感情」のほうが。「行動」は既成(注2)事実として存在しているから変えようがない。そこで脳は感情のほうを変えるのだ。はじめは服AとBを同じくらい好きだったかもしれない。しかし自分はBを排除してしまった。どんな理由があったにしろ、その行為は事実でそれ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こで「BもAくらい好きだった」という感情を変更してしまうのだ。「実はBはそれほど私の好みではなかった」と。一方、服CはAほど好きではなかったわけで、Aを選択したという自分の行為と感情に矛盾はない。だからCへの評価を変える必要もない。入団手続きの実験についても同じことが言える。手続きはそもそもそれ自体がわずらわしく、避けられるなら避けたいもの。それが複雑な手続きともなればなおさらである。しかし、自分はその複雑な手続きをやってまで入団した。この事実は変えられない。だからこそ「それほどまでにこの団体が好きなのだ」となる。

このような心の②不協和を無意識に解決しようとする圧力は、大人だけでなく子ども、さらにはサルにまで観察されると実験結果が出ている。自己矛盾は不快だから解決したいという心理は、高等哺乳類に普遍的な原理なのかもしれない。

(注1) 断腸^{だんちよう}の思い：とてもつらく悲しい気持ち。
(注2) 既成：ある事柄がすでにできていること。

<1> 選択後の好感度の変化はどんな時に現れるか

1. 服Aと服Bを見てどちらも気に入ったとき
2. 服Aより服Cのほうが気に入らなかったとき
3. 服Cより服Aのほうが少しだけ気に入ったとき
4. 服AとBは好きで服Cは気に入らなかったとき

<2> ①この不一致と合っているものはどれか

1. 自分が「行動」しようとするのと、自分の「感情」が違うと気づいたこと
2. 自分の「行動」と「感情」に差があるので、一致させようとする

3. 自分の「感情」に対して、自分がした「行動」に矛盾があること
4. 自分がする「行動」は自分の「感情」といつも違うということ

〈3〉 ②不協和を無意識に解決しようとするというのは具体的にどういうことか

1. 面倒なことを避けて何かを達成したとき、相手に対する好感度が上がってしまう
2. とても大変なことをしたときに、自分の感情も「とても大変なことをしたな」という考えに変えてしまう
3. 自分が好きなものを選んだ時に、無意識に好きじゃないほうの評価を下げてしまう
4. 自分がしたいことと、結果的にしたことが違ったときに実際の考えを変えてしまう

〈4〉 この文章に書かれている筆者の主張と違うものを選びなさい

1. 脳が自己矛盾を感じると、無意識のうちに自分の感情にうそをついてしまう
2. 脳は行動と感情に矛盾があるとき、その不快を解決して自己満足しようとする
3. 脳が自己矛盾を回避しようとする作用によって、人はもともとの本音をさらけ出してしまう
4. 脳は「いまさら行動は変えられないが、感情は変えられる」と思ってこれらの不一致を一致させようとする

〈어휘〉

脳 뇌 ^{みょう} 妙に 묘하게 ^{じ こまんぞく} 自己満足 자기 만족 ^{ざんねん} 残念ながら 안타깝게도, ^{りょうほう} 유감스럽게도 兩方
 양쪽 ^{요산} 予算 예산 ^{단치요} 斷腸의 ^{おも} 思い 단장의 슬픔(몹시 슬픔) ^{ちゅうちよ} 躊躇する 주저하다 ^{ふくざつ} 複雑な 복잡한
 手順 ^{てじゆん} 순서 ^ふ 踏む 밟다 ^{てつづ} 手続き 절차 ^{にゅう단} 入단 입단 ^{こういんしやう} 好印象 좋은 인상 ^{ぶんせき} 分析 분석 ^{こうどう} 行動 행동
 행동 ^{かんじよう} 感情 감정 ^さ 差 차, 차이 ^{ふいつち} 不一致 불일치 ^{むいしき} 無意識 무의식 ^{かいけつ} 解決 해결 ^{けっか} 結果 결과
 行動 ^{こうどう} 행동 ^{かんじよう} 感情 감정 ^{へんこう} 變更 변경 ^{きせい} 既成 기성, 기존 ^{じじつ} 事實 사실 ^{하이요} 排除 배제 ^{こう이} 行為 행위
 否定 ^{ひてい} 부정 ^{こう이} 行為 행위 ^{むじゆん} 矛盾 모순 ^{ふくざつ} 複雑な 복잡한 ^{ふきやうわ} 不協和 부조화 ^{むいしき} 無意識 무의식 ^{あつりよく} 壓力 壓力
 압력 ^{かんさつ} 觀察 관찰 ^{じつけん} 實驗 실험 ^{けっか} 結果 결과 ^{じ こむじゆん} 自己矛盾 자기 모순 ^{ふかい} 不快な 불쾌한 ^{ほにゅうるい} 哺乳類
 포유류 ^{ふへんてき} 普遍的な 보편적인 ^{げん리} 原理 원리

〈해설〉

뇌는 묘하게 자기만족한다. 쇼핑 중에 마음에 드는 옷 A 와 B 가 있다고 하자. 안타깝게도 양쪽 모두 살 예산은 없지만, 양쪽 모두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1 개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비장한 심정으로 A 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 때 A 와 B 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할까? 설문을 해보면, 흥미롭게도 선택 전에 비해서 선택 후에는 B 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옷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바꿔 버리는 것이다. 거기서 다른 실험을 해 보았다. 이번에는 옷 A 와 C 를 택하게 한다. C 보다는 A 가 어느 정도 자신의 타입이다. 주저없이 A 를 택할 것이다. 이 경우, 선택한 후 C 의 평가는 낮아지지 않는다. 이상으로 보아, 선택한 후의 호감도 변화는 물건의 취향에 명확한 차이가 없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더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기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절차와 그다지 어렵지 않는 절차 중 하나를 거쳐 입단하게 한다. 입단 후에 그 단체의 인상을 묻자,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입단한 사람 쪽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런데 이 2 개의 실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과 ‘감정’ 에 차이가 있을 때 이 불일치를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즉, 이 두가지를 일치시키려고 생각한 결과, 행동이나 감정의 어느쪽인가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중 어느 쪽이 바꾸기 쉬울까? 말할 필요도 없다. ‘감정’ 쪽이다. ‘행동’은 기성 사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뇌는 ‘감정’을 바꾸는 것이다. 처음에는 옷 A와 B를 같은 정도로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은 B를 배제해 버렸다. 어떤 이유가 있든 그 행위는 사실이며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B도 A만큼 좋아했다’라는 감정을 변경해 버린 것이다. ‘사실은 B는 별로 자신의 취향이 아니었다’라고. 한편, 옷 C는 A만큼 좋지 않아서, A를 선택했다는 자신의 행위와 감정에 모순은 없다. 그래서 C에 대한 평가를 바꿀 필요도 없다. 입단 절차의 실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수축은 원래 그 자체가 번거롭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그것이 복잡한 절차가 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입단했다. 이 사실은 바꿀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그토록 이 단체를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된다. 이런 마음의 부조화를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압력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 심지어는 원숭이에서까지 관찰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자기모순은 불쾌하니까 해결하고싶다는 심리는 고등 포유류에 보편적인 원리인지도 모른다.

<1> 선택 후의 호감도의 변화는 어떤 때에 나타나는가?

1. 옷 A와 옷 B를 보고 모두 마음에 들었을 때
2. 옷 A보다 옷 C 쪽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3. 옷 C보다 옷 A 쪽이 조금만 마음에 들었을 때
4. 옷 A와 B는 좋고, 옷 C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2> ① 이 불일치와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자신이 ‘행동’ 하려는 것과 자신의 ‘감정’이 다르다고 깨닫는 것
2.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려는 것
3.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자신이 한 ‘행동’에 모순이 있는 것
4. 자신이 하는 ‘행동’은 자신의 ‘감정’과 항상 다르다는 것

<3> ② 부조화를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 귀찮은 일을 피하여 무엇인가를 달성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버린다
2. 매우 힘든 일을 했을 때 자신의 감정도 “매우 힘든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버린다.
3.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무의식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의 평가를 낮추어 버린다.
4.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결과적으로 한 일이 다른 때에는 실제의 생각을 바꾸어 버린다

<4> 이 글에 적힌 필자의 주장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1. 뇌가 자기 모순을 느끼면, 무의식 중에 자신의 감정에 거짓말을 해 버린다.
2. 뇌는 행동과 감정에 모순이 있을 때 그 불쾌감을 해결하여 자기만족하려고 한다.
3. 뇌가 자기 모순을 회피하려는 작용에 의해서, 사람은 원래의 속내를 드러내어 버린다.
4. 뇌는 “이제 와서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감정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것들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려고 한다.

정답 : ㉠ 1 ㉡ 3 ㉢ 4 ㉣ 3

多忙は限界を超える状況ではないだろうか。文部科学省が小中学校の教員の勤務実態調査を公表した。全国の公立小中学校から選択した約1万9000人の結果で、10年前との比較も発表された。

㉠小中学校ともに勤務時間は延びている。1週間の勤務時間は小学校が4時間ほど延びて57時間25分、中学校でも5時間ほど長くなり63時間18分だ。忙しさに拍車がかかって(注1)いる。週に約60時間もの労働実態だ。さらに「過労死ライン」に達する計算となる週60時間以上の勤務は、小学校で3人に1人、中学ではなんと6割近く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国際機関の調査では、先進諸国の中学教員は平均すると週約38時間の勤務で、日本は突出して長い。

長時間勤務の大きな要因となっているのは、授業時間数の増加と部活動指導だ。いわゆる「ゆとり教育」で学習内容が削減された学習指導要領が改定され、小学校低学年では週に2時間、それ以上は週に1時間授業が増えた。準備のための時間や成績をつける時間も増えることになる。少人数指導が広まり、先生が受け持つ授業も多くなった。中学では休日の部活動の指導時間が倍増し、平均で2時間を超えている。大会等に向けた指導でつきっきり(注2)になっている姿も浮かび上がる。年間で5000人前後もの教員が精神疾患で休職しているのが現状だ。教員増とともに、外部の支援や仕事内容の見直しが不可欠だ。

文科省も、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や部活動指導員を学校職員と位置付けるなど、福祉・心理や部活動の専門家を学校に導入することで見直しを図ろうとしている。㉡この流れをさらに加速させる必要がある。外部への報告書作りなどの事務作業の多さも相変わらずだ。教育委員会なども教員の負担になる調査を実施していないか見直す必要がある。それだけでなく学校自体としても行事や研修、会合を詳しく調べるべきだ。2020年度からは小学校で英語が教科として加わり、討論などで能動的に学ぶ(注3)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も導入される。さらに忙しくなる。先生が疲れ果てていては、教育の質も低下する。負担軽減は日本の将来に向けた㉢早急の課題だといえるだろう。

(注1) 拍車がかかる：進行が一段と速くなる。

(注2) つきっきり：ずっとそばについているさま

(注3)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参加者を中心とした学修を指す学習方法

<1> ㉠小中学校ともに勤務時間は延びているとあるが原因として正しいものはどれか。

1. 「ゆとり教育」が見直され、先生の負担が多くなったから。
2. 少人数制の授業が増え、学生数が少なくなったから。
3. 教員の増員が授業数増加に追い付いていないから。
4. 部活動の指導や成績をつける仕事が多くなったから。

<2> ㉡この流れとして正しいものはどれか。

1. 部活動指導時間の削減
2. 教員が担当する授業の増加
3. 心理の専門家を学校に配置
4. 外部への報告の徹底

<3> ③早急の課題として正しいものはどれか

1. 教育の質を上げるために、教員への指導を徹底する。
2. 小学校で導入される英語教育を担当する教員の質の低下を防ぐ。
3. 教員の疲労や負担を減らし、教育の質を低めない。
4.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を導入し、教育の質を高める。

<4> 本文の内容に合わないものはどれか。

1. 10 年前に比べ小中学校ともに教員の仕事時間が増加した。
2. 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が先生として学校に導入されることになった。
3. 教育の質の低下は先生の疲労度の増加が原因だ。
4. 部活動の指導により教員の負担が増えてしまった。

<어휘>

多忙な たばう 몹시 바쁜 게으른 限界 げんかい 한계 한계 教員 きょういん 교원, 교직원 교원 勤務 きんむ 근무 근무 実態 じったい 실태 실태 公表 こうひょう 공표 공표
比較 ひかく 비교 비교 発表 はっぴょう 발표 발표 延びる のびる 늘다, 향상되다 향상되다 拍車がかかる ぱくしゃがかかる 박차가 걸리다 박차가 걸리다 労働 ろうどう 노동 노동
過労死 かりうし 과로사 과로사 計算 けいさん 계산 계산 平均 へいきん 평균 평균 部活動 ぶかつどう 동아리 활동, 과외활동 과외활동 指導 しどう 지도 지도 ゆとり ゆとり
教育 きょういく 유토리 교육, 여유 교육 여유 교육 削減 さくげん 삭감 삭감 改定 かいてい 개정 개정 低学年 ていがくねん 저학년 저학년 成績 せいせき 성적 성적 少人数 しょうにんずう 소인원수 소인원수
浮かび上がる うかびあがる 떠오르다 떠오르다 精神疾患 せいしんしつかん 정신 질환 정신 질환 休職 きゅうしよく 휴직 휴직 現状 げんじょう 현상 현상 教員増 きょういんぞう 교원 증가 교원 증가
見直し みなおし 재검토 재검토 不可欠 ふかけつ 불가결 불가결 文科省 もんかしょう 문부 과학성 문부 과학성 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 스쿨 카운슬러 카운슬러 福祉 ふくし 복지 복지 心理 しんり 심리 심리 専門家 せんもんか 전문가 전문가 導入 どうにゅう 도입 도입 加速 かそく 가속 가속 報告書作り ほうこくしょづくり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事務作業 じむさぎょう 사무 작업 사무 작업 相変わらず あいかわらず 여전히 여전히 討論 とうろん 토론 토론 能動的な のうどうてき 능동적인 능동적인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 액티브 러닝 能동적 학습 능동적 학습 疲れ果てる つかはてる 몹시 지치다 몹시 지치다 低下 ていか 저하 저하
負担 ふたん 부담 부담 軽減 けいげん 경감 경감 早急の課題 さっきゅう かだい 조속한 과제, 급선무 조속한 과제, 급선무

<해석>

바쁘다는 것은 한계를 넘는 상황이 아닐까?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사의 근무 실태 조사를 공표했다.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선택한 약 19,000 명의 결과로 10 년 전 조사와의 비교도 발표됐다. 초등학교 모두 근무시간은 늘어 있다.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초등학교가 4 시간 가량 늘어서, 57 시간 25 분, 중학교에서도 5 시간 정도 길어져 63 시간 18 분이다. 바쁘다는 것에 박차가 걸리고 있다. 일주일에 약 60 시간의 노동 실태이다. 더우기 ‘과로사 라인’에 달하는 계산이 되는 주 60 시간 이상 근무는 초등학교에서는 3 명중 1 명, 중학교에서는 무려 60%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제기관의 조사에서는 선진국의 중학교 교원은 평균하면 일주일에 약 38 시간 근무로 일본은 두드러지게 길다.

장시간 근무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은 수업 시간 수의 증가와 동아리 활동지도이다. 이른바 ‘여유로운 교육’에서 학습내용이 삭감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일주일에 2 시간, 그 이상은 일주일에 1 시간 수업이 늘어났다. 준비를 위한 시간과 성적을 매기는 시간도 늘어난다. 소인원수 지도가 확산되면서 선생님이 담당하는 수업도 많아졌다. 중학교에서는 휴일 특별활동의 지도 시간이 증가하여 평균 2 시간을 넘고 있다. 대회 등을 위한 지도로 줄곧 곁에 매달려 있는 모습도 떠오른다. 연간 5000 명 안팎의 교원이 정신 질환으로 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증가와 함께 외부의 지원이나 업무내용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문부성도 스쿨 카운슬러나 동아리 활동 지도원을 학교 직원으로 규정하는 등 복지·심리나 동아리 활동 전문가를 학교에 도입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도모하고 있다.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외부로의 보고서 작성 등의 사무작업이 많은 것도 변함이 없다. 교육위원회 등도 교원의 부담이 되는 조사를 실시하지 있지 않은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도 행사와 연수, 회합을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2020 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교과로 추가되어, 토론 등에서 능동적으로 배우는 액티브 러닝(능동 학습 기법)도 도입된다. 더욱 바빠진다. 선생님이 지치면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 부담 경감은 일본의 장래를 향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①초등학교 모두 근무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원인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여유로운 교육’ 이 재검토되면서 선생님의 부담이 많아졌기 때문에
2. 소수인원제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의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3. 교원 증원이 수업 횟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4. 동아리 활동의 지도나 성적을 매기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2> ②이 흐름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1. 동아리 활동 지도 시간의 삭감
2. 교원이 담당하는 수업의 증가
3. 심리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
4. 외부 보고 철저

<3> ③조속한 과제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1.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교원의 지도를 철저히 한다.
2. 초등학교에서 도입된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질의 저하를 막는다.
- 3 교원의 피로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
4. 액티브-러닝을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4>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10 년 전에 비해 초등학교 모두 교원의 근무 시간이 증가했다.
2. 스쿨 카운슬러가 선생님이로서 학교에 도입된다.
3. 교육의 질 저하는 선생님의 피로도 증가가 원인이다.
4. 동아리 활동의 지도에 따른 교원의 부담이 늘어났다.

정답 : ㉠ 2 ㉡ 3 ㉢ 1 ㉣ 1

たとえばパーティーの席で、酒を飲む人が飲めない人に向かって、「人生の楽しみの1つを知らないなんてかわいそうね。」という。酒が飲めない人には慣れていることではあるが、「そんなことはないですよ」と軽く返事をすると、「おいしいものを無理に飲ませるのももったいないな。」と言われる。酒が飲めない人にとっては、「飲める・飲めない」ということは普段まったく問題にならないことなのに、酒が飲めないことに関して勝手なことを言われて「飲めない」人がそれに対して反論すると、その後嫌な雰囲気になるだろう。

酒好きの人と酒が飲めない人のこの関係は①非対称的である。好き嫌いというものは「好き」の立場から投げかけられたものだからである。「嫌い」ということが焦点化されるのは、「嫌い」の立場の人からではなく、これもまた「好き」の立場の人からである。「嫌い」な人にとっては、ここでは「酒」は焦点化すらされていないのであり、ここでもまた「飲める・飲めない」ということは問題にすら感じていないのである。

酒が飲めない人はこの関係が理不尽(注1)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が、酒好きの人には、自分の投げかけている視線から、酒を飲めないことの「不幸」が、酒を飲めない人の中にあるかのように見える。そして、その錯覚が多数派である限り、それは常識となり、その常識が「嫌い」な立場の人にとっても、常識として内面化し、「楽しみの欠如」であると思えようようにさえなる。楽しみの欠如と認識することで初めて、「飲める・飲めない」ということが問題に感じられ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酒が飲めない人のように、その理不尽さに腹を立てて反論しても、②無駄である。なぜなら、この非対称性は解消できないどころか、さらに補完される。それは、この非対称な関係によって失われてしまっているのが無関係性だからである。反論することは、「酒が飲める」「酒が飲めない」の議論に関係をもってしてしまうことであるからである。「不幸」や「欠如」なんて「嫌い」の立場の人にとっては、もともとなかったはずのものなのに、強く反論する限りそれらを意識し、③その不在が強く認識されてしまう。

^{ぶすい}
無粋な(注2) 反論などをせず、ただいつものようにやり過ごした方が、過剰に陥ることを避けられたはずだろう。しかしその場合、理不尽な非対称性は温存され、酒好きの「常識」が「常識」として続いていくことだろう。その関係を通じた以上は、もう二度と戻れないのである。もちろん酒好きの人が言葉を慎むこともできるだろうし、そうすべきである。しかし、両者のどんな紳士的な対応によっても、非対称性が明らかになってしまった以上は、なかったこと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る。

(注1) 理不尽：物事の筋道が通らないこと。

(注2) ^{ぶすい}無粋：物事の風流な趣が分からないこと

<1> ①非対称的とはここではどういうことか。

- 1 「好き」と「嫌い」という関係
- 2 酒好きの人が、一方的に酒が飲めないことを不幸だとみなすこと
- 3 酒が飲めない人は、「飲む・飲めない」ということに問題を感じないということ
- 4 酒の席では、飲むか飲めないかの2つしか選択肢がないということ

<2> 何が②無駄であるのか。

- 1 お酒が飲めない不幸を飲める人がおしつけること
- 2 お酒がのめないことを「楽しみの欠如」として認めること
- 3 飲める人に勝手なことを言われて、「飲める・飲めない」を問題にしてしまうこと。
- 4 酒という問題に焦点をあててしまうこと

<3> ③その不在とは何か

- 1 「楽しみの欠如」を認めてしまうこと
- 2 強く反論してしまうこと
- 3 非対称性を改善しようとする事
- 4 「好き」「嫌い」の立場を明らかにすること

<4> ここで筆者が一番言いたいこととして正しいことはどれか。

- 1 「嫌い」の立場の人は激しく反論すべきではない。
- 2 酒好きの「常識」を認めると、二度と戻ることはできない。
- 3 非対称性をそのまま持ち続けるべきである。
- 4 非対称性はなかったことにはできない。

<어휘>

普段 평소 反論 반론 嫌な いや 싫은 雰囲気 분위기 酒好き 술꾼, 주당 非対称的 비대칭적
焦点化 초점화 すら 조차 理不尽な 불합리한 投げかける 내던지다 視線 시선 不幸 부행
불행 錯覚 착각 多数派 다수파 常識 상식 欠如 결여 腹を立てる 화를 내다 無駄 무駄
낭비 解消 해소 無粋な 멋없는, 세련되지 못한 過剰 과잉 陥る 빠지다, 빠져들다 避
ける 피하다 温存する 온존하다 慎む 삼가다 紳士的な 신사적인 対応 대응

<해석>

예를 들어 파티석상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못 마시는 사람을 향하여 “인생의 즐거움의 하나를 모르다니 불쌍하네”라고 말한다. 술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라고 가볍게 대답을 하면, “맛있는 것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깝군”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술을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없다” 는 평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도, 술을 못하는 것에 관해서 제멋대로 지껄이는 말을 듣고 ‘못 마시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그후에 안좋은 분위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술을 못하는 사람의 이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입장에서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싫어하는’ 입장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이것도 또한 ‘좋아하는’ 입장인 사람으로부터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술’ 은 쟁점조차 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에서도 또한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없다’ 는 것은 문제라고조차 여기지 않는 것이다.

술을 못하는 사람은 이 관계가 억지스럽다는 것임을 알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던지는 시선으로부터 술을 못 마시는 ‘불행’ 이, 술을 못 마시는 사람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착각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한, 그것은 상식이 되고, 그 상식이 ‘싫어하는’ 입장인 사람에게 있어서도 상식으로서 내면화되어 ‘즐거움의 결여’ 라고 간주하는 것 같은 경우조차 있다. 즐거움의 결여라고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없다’ 라는 것이 문제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술을 못 마시는 사람처럼 그 불합리함에 화를 내며 반론해도 헛수고이다. 왜냐하면 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보완된다. 그것은 이 비대칭적인 관계에 의해서 잃게 되는 것이 ‘무관계성’ 이기 때문이다. 반론하는 것은 ‘술을 마실 수 있다’ ,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논의와 관계를 갖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불행'과 '결여' 같은 것은 '싫어하는' 입장인 사람에게는 원래 없었을 것인데도, 강하게 반론하는 한 그것들을 의식하고 그 부재가 강하게 인식되어 버린다.

멋없는 반론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넘어가는 편이 과잉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불합리한 비대칭성은 온존되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상식'이 '상식'으로서 지속되어 갈 것이다. 그 관계를 통과한 이상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삼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양자의 어떤 신사적인 대응에 의해서도 비대칭성이 명확해져 버린 이상에는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① 비대칭적이라고 여기에서는 무슨 일?

- 1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라는 관계
- 2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술을 못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
- 3 술을 못하는 사람은 '마신다, 못 마신다'라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
- 4 술 자리에서는 마시는 가 못 마시는 가의 두가지 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

<2> 무엇이 ② 헛수고인가?

- 1 술을 못 마시는 불행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강요하는 것
- 2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즐거움의 결여'로서 인정하는 것
- 3 마실 수 있는 사람에게 제멋대로인 말을 듣고,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없다'를 문제로 해 버리는 것
- 4 술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는 것

<3> ③ 그 부재란 무엇인가

- 1 '즐거움의 결여'를 인정하는 것
- 2 강하게 반론해 버리는 것
- 3 비대칭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 4 '좋은 것' '싫은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

<4> 여기서 필자가 제일 말하고 싶은 것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1 '싫어하는' 입장인 사람은 거세게 반론해서는 안 된다.
- 2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상식"을 인정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 3 비대칭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4 비대칭성은 없었던 것으로는 할 수 없다